

5/23/21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번성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 장 1-22 절

(출 1:1)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 1: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출 1: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출 1: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출 1:5)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 1: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 1:9)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 1: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 1: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출 1:13)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출 1:14)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 1: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출 1:16)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 1: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출 1: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출 1: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 1: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난 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끝내고 이어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니다.

본래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쓴  
책으로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후에 분리한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첫 문장입니다.  
히브리 원서로 보면 출애굽기 첫 문장은 '웨엘렛 쉘모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단어가 '웨(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이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하나님은 이들을  
당시 최강국인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400 년 동안 성장시키고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수가 차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당신이 본래 주시기로 작정한 땅 가나안으로  
옮기려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후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당신이 온 천하에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무한한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증거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총 40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19 장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 장까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40 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곱가가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약 350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이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 겨우 70 명이었던 야곱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 1:1)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 1: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출 1: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출 1: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출 1:5)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 1: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늘의 못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란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허리에 후손을 얻을 생명력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후손을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야곱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70 명이었던 야곱가는 창대하고 강성해져 고센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야곱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도 정치적으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집권했던 히소스(Hyksos)왕조가 붕괴되고 제 18 왕조가 (BC 1580 년-1514 년경) 들어섰습니다.

새 왕은 이전 왕조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출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 1:9)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 1: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 1: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 왕(투트모세 1 세라고 봄)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직접 겪어 보지 못해 그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새 왕이라고 하지만 7년 대홍년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애굽 역사상 기념비적인 인물인 요셉에 대해 듣지 못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부추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인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이 애굽 내에서 급속히 신장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경계하여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감을 갖도록 부추기기 위해 계산적으로 한 말입니다.

새 왕이 애굽인들에게 민족 감정을 유발시켜 반 이스라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가지 면에서 경계했는데 하나는 애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대적에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하여 애굽에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 나간다면 애굽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하여 힘겹고 고단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국고성이란 유사시 군량이나 병기를 현지에서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미리 변방에 비축해 둘 목적이나 타작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또는 세금을 거두어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창고입니다

그렇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출 1:31)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출 1:14)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굽기야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합니다.

(창 1: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창 1:16)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 1: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출 1: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였고 산파들의 집안은 흥하였습니다.

(출 1: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 1: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 왕은 결국 극단적인 령을 내립니다.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전한 애굽을 80 여년이 지난 후 그들의 장자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며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삼상 2:30)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